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고전 접근법

1. 전형적인 주제 : 충-연군지정, 호, 학문, 수양, 자연친화, 물아일체, 안빈낙도, 유교적 가치관...
2.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3. 현대시 접근법 베이스

(가)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룰 것가

대강 이쯤 끊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뻘한 주제 흐름이 있고, 그 정보군집(chunk)이 존재합니다.

홍진 = 속세

속세 사람들에게 내 생이 어떠하냐 묻죠?

나라면, 왜 물었을까?

간단

Flex!

예전 기준으로는 저게 잘 사는겁니다

요즘은 해외여행가고, 외제차 타고, 명품 사면 자랑하듯!

예전에는 저렇게 놀러 다니는 것을 자랑!

산림에 묻혀서 살만하다!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자연에 있고, 자연 주인이 되었고, 자연친화!

굉장히 아주 전형적 주제!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계절 변화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 묘사

사실 이 부분이 문학사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표현이라 하여 많이 다루긴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중요한 이슈 없습니다.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자연의 아름다움.

조물주의 능력 칭찬 하고, 아무튼 자연친화. 예찬.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봄 기운이 좋고!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홍이의 다룰소냐

물아일체!

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호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정자에 앉아서, 여기 저기 보니까 적적하고,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웃들한테 놀러가자고 권유

답청(踏青)이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세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희조수(釣水)호새
 꺾 피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경치 좋은 곳, 술도 먹고 맛난 것도 먹고 하는 거 같죠?

화풍(和風)이 건뚝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둔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잡도다 저 락이 권 거인고

결국, 술먹고, 맛있는거 먹고, 경치도 보고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이상향이다. 좋다!

대만족하네요!

구조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자연이 좋고

그래서 자연친화, 물아일체

자연에서 술도 먹고 좋다. 자연이 이상향이다.

하면서 끝나는 구조/내용이라 그 정도의 처리만 정리합니
 다.

-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 뻑뻑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상춘곡 : 봄기운 + 좋음

구조	자연	정서
	속세 VS 자연	자부심
	자연 주인	자연친화
	계절감. 자연	자연 아름다움 조물주 칭찬
	봄기운	좋음
	자연	물아일체 이웃들에게 놀러감 권유
		놀다 보니 너무 좋아 술먹고 여기가 이상향 무릉도원!

(나)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주자. 학문한다는 이야기죠? 역시 유교적 가치관

일곡은 어디미오 ㉡관암에 희비천다
 평무(平蕪)에 너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2수>

관암을 보니 해가 비추고

그림이다... 자연이 이쁘다는 말 이겠죠?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니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춘만. 봄 기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르치자는 이야기도 있네요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도 ㄴ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어쨌든. 강학. 뭔가 공부하자 이런거죠

칠곡은 어디미오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가을 색.

금수. 자연이 아름답고.

한암에 혼자 집.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기암괴석이 눈에 있으니

당연히 볼게 있을 텐데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볼게 없
 다 하니 비판?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 술잔 또는 술동이.
- * 벽파 : 푸른 물결.
- * 소쇄홀: 기운이 맑고 깨끗함

이 정도 선에서의 해석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필기를 해야하니,

또,

애매한 것은 싫으니

뭐라고 확정짓길 원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확정지어서는 안 되는 해석을 내신/시중 자료에서 확정을 지어버리고.

결국 평가원에서 원하는 수준, 원하는 선, 원하는 결,

바라는 수준에서 정보처리가 되질 않아

계속해 고전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유교적 가치관

충. 연군지정. 관직 나감. 공부.

효

공부하다보니 자기 수양. 자연 친화.

그러다보니 자연예찬. 안분지족. 물아일체 등등

정말 편하디 편한 주제 읽어내는 그 정도 수준이 일단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부터.

쓸데 없이 개념어 묻지 않아요.

주제 처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상춘곡 : 봄기운 + 좋음

구조	자연	정서
	속세 VS 자연	자부심
	자연 주인	자연친화
	계절감. 자연	자연 아름다움 조물주 칭찬
	봄기운	좋음
	자연	물아일체 이웃들에게 놀러감 권유
		놀다 보니 너무 좋아 술 먹고 여기가 이상향 무릉도원!

고산구곡가 : 봄기운 + 좋음

구조	자연	정서
1수		학주자 - 학문
2수		자연이 아름다움
3수		봄 느낌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함
6수		강학-가르침
8수		가을 느낌 자연 아름다움
10수		기암괴석 아름다움 사람들이 모르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잡으세요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자연친화 이런건데 허무함? 이런거 없쥬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건 가능. 하지만 너무 지엽. 주제를 더 찻쥬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거리감? 자연친화인데?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회고? 역사인물? 전혀 아닌데?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 역시 정답!

자연친화 + 계절등등

자연묘사. 주제! 주제! 주제! 잡으세요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공감유도.

대화상황.

별 내용 보기에 없고

결국은 주제!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플렉스. 자부심이라 했죠?

자부심인데 다 똑같은 자부심?

남 못하는 거 해야 자부심. 동질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같이 놀러가자는 이야긴데... 선지는 도대체 뭘 말?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명령? 일단 그 부분 해석 안 되면 스킵!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맞쵸! 가르치고 있네!

주제.

이이.

학문. 학주자. 이런 이야기 전반 보면

끈대...

역시!

주제 정답!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서 뭐라 말하는 것 비판!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정서 - 자부심 있었죠? 정답 없음 그때 디테일 받쳐독 갑니다.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정답 바로 보입니다.

아니. 자부심 +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하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있을까? 바로 정답 끝!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당연히 자연친화, 노는게 좋고... 기대감도 있겠죠?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물아일체!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역시! 주제!

19. ㉠~㉦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항은 출제자들의 집단 의식에 의한 출제로 보이는데 사실 자연 묘사로 시작하는 대표적 작품이

(한국 가사 문학 1등)

정철의 관동별곡이고

당연히 거기서 발상이 올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쓰이는 자연물에 대한 분류는 2가지입니다.

1. 다른 자연물이 잘 보이는 자연물에 올라가서 주변 자연물을 보는 것

2. 그냥 자연물을 보는 것

3. 이동경로상의 자연물

즉, 묘사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과

묘사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을 보기 위한 위치에 존재하는 자연물(봉우리 등)

이동경로상의 자연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를들어,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를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이동경로상의 자연물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묘사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묘사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을 보기 위한 위치에 존재하는 자연물(봉우리 등)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

예찬하고 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기준 잡는 설계의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설계 파악없이

발췌독으로 풀 수 밖에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평가원의 발상과 설계를 눈여겨 봐 두시면

추후 이러한 문항이 킬러 유형으로 연결될 때

다른 학생들 대비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망의 20번

제가 보기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이론적, 학문적 배경도 당연히 있지만, 그 접근이 결국 오류를 범하게 하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많은 학생이 여기서 물아일체를 처리하고

보기 선지 연결이 편한 정보처리이기 때문에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5번 선지가 괜찮다고 다른 선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5번선지.

이유는

이이의 고산구곡가 그 어디에도

물아일체는 없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정답스펙트럼

정답스펙트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가장 오답										가장 정답

수능 국어 문학 선지, 정답/오답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정답, 가장 오답 그래서 '가장 적절'이라는 매우 비논리적 발문이 있는 것입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상춘곡 : 봄기운 + 좋음

구조	자연	정서
	속세 VS 자연	자부심
	자연 주인	자연친화
	계절감. 자연	자연 아름다움 조물주 칭찬
	봄기운	좋음
	자연	물아일체 이웃들에게 놀러감 권유
		놀다 보니 너무 좋아 술 먹고 여기가 이상향 무릉도원!

고산구곡가 : 봄기운 + 좋음

구조	자연	정서
1수		학주자 - 학문
2수		자연이 아름다움
3수		봄 느낌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함
6수		강학-가르침
8수		가을 느낌 자연 아름다움
10수		기암괴석 아름다움 사람들이 모르네

즉, 정리하면,

고산구곡가는

자연-예찬-묘사-친화

학문-다른 사람들 가르침-비판

까지는 있지만

물아일체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비약이고

따라서 가장 틀린 선지 5번 선지!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보기. 작품 보면. 벗들과 교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발취독 갑니다.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 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 가능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역시 보기. 학주자. 등 주제 관련.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보기. 주제.

역시 괜춘

그런데 물아일체?

확인조차 안 되네?

가장 오답!

물아일체를 보기 연결해서 틀린 학생 비율이 상당합니다.

보기 준거 감상.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고전.

반복해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뻘한 주제.

현대시 베이스.

정서 - 주제에 관련된 내용 확인하며

나라면, 그 당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공감하고, 상상해보는 과정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대강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공감도 어느정도 가능해집니다.

단지 10년만 지나도 우리의 말과 생각은 크게 달라지는데 수백년을 뛰어넘은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완벽을

정확한 작품 해석을

정확한 고어에 대한 암기를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작품 해석과 이해,

공감,

의사소통이면 출제의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과거 16이전

특히 2014학년도 이전 기출은 물론

암기 전제 또는 좀 더 디테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6차 시절 국어가 국정교과서였고,

그래서 정전교육에서 특정 작품은 학생들이 암기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했지만

이제는 그 출제 경향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수준이 정확히 평가원의 요구입니다.

과한 것은 때로는 시간, 난이도, 판단력, 평가원 의도, 설계 모두를 무시하는 접근이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쓸데 없는 리스크 안고 가지 마십시오.

리스크 헷지(Risk hedge)는 투자나 기업 경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16~2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세** **자부심 Flex**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었더호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호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자연 친화**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자연 친화**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 **자연 주인**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정서**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를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관광**
 소요음영* 호야 산일(山日)이 적적헌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권유**
 답청(踏青)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꺾 피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풍류**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호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이상적 공간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 뻑뻑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호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호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관암에 히비쨌다 **학문**
 평무(平蕪)에 니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묘사 대상**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불 기운** **장면 예찬**
 벽파*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노라 **풍경**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풍류** **흥들 었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권유, 가르침**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도 ㄱ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호러니와 **영월음풍** 호리라 <6수>

학문
 칠곡은 어디미오 ㉣풍암에 **가을기운**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경치 좋음**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군 속** **겨울** 무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호고 볼 것 업다 호더라 <10수>

모르고 말하는사람 비판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 푸른 물결.
 * 소쇄홈: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허무**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계절**
- 주제+전개방식**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자랑**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주제**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주제**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주제**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X부러움**이 드러나는군. **주제**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을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전개방식**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은 ㉠을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주제,소재**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을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주제,소재**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준거의 위험**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보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물아일체** **주제**